

세계 '바둑 올림픽' 닷 올랐다

최초로 열리는 제1회 세계 마인드스포츠대회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일본에 이어 대만이 최근 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발표하는 등 참가국들이 선수단 구성을 모두 마쳤다.

대만은 응경기바둑교육기금회가 주축이 돼 대만기원, 중국위기회 등이 공동으로 선수를 선발했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 기사 등을 포함해서 최장예 선수를 중심으로 뽑았다.

응경기측은 저우쥔췬, 펑진화 등을 확정했으며 한 때 90년대에 저우쥔췬과 패권다툼을 벌이다 외국으로 간 시아지엔위를 뽑았다. 대만기원은 천스위엔, 린즈한, 샤오정하오 등 대만기원 상위 랭킹 3명을 뽑았다. 또 강정평, 장카이신, 당시원, 샤오아이린 등 여류기사 4명을 출전 선수로 확정했다.

일본기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사 가운데는 왕리청, 왕방완, 린한지에, 관산치, 장리요우, 황이주, 리이시우를 비롯해 왕리청의 딸인 왕징이, 씨에이민, 관운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대만의 대표 주자인 장쉬는 명인전 도전기와 일정이 겹쳐 출전하지

않는다.

대만은 아직 종목별 출전 선수를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기원도 최근 국내 랭킹 2위인 이창호 9단만 제외된 국내 랭킹 최상위권 프로기사 21명과 아마추어 4명 등 총 25명(남자 16·여자 9) 명단을 발표했다. 남자단체전(10월 12~18일)에는 이세돌, 조한승, 원성진, 박정상, 한상훈, 이영구가 출전하고, 남자 개인전(3일~9일)은 박영훈, 목진석, 백홍석, 강동윤, 최철한이 참가한다.

또 여자단체전(10~16일)은 김혜민 박지연 권학진이 출사표를 던졌고, 여자개인전(4~10일)에는 박지연은 이민진 이슬아가 출전하기 했다.

흔성체어전(11~18일)에는 흥성지·김은선 조, 윤소진·이하진 조, 흥석의·김신영(아마추어) 조가 나간다. 아마추어 전용종목인 오픈개인전(5~11일)은 선발전을 거쳐 합영우 이용희가 대표권

한국·일본 이어 대만도 선수단 구성 마쳐

한국팀, 이창호 제외 정예멤버 25명 발표

中, 창하오 등 총동원 금메달 싹쓸이 도전

을 획득했다.

개최국 중국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계 마인드스포츠 분야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열성적으로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 구리, 창하오, 풍지에, 후야오위, 루이니아웨이 등 남녀 정상급 기사들까지 총동원해서 바둑 부문에 걸친 금메달을 쟁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자국 3대 타이틀을 보유자인 야마시타 게이고(기성·이하 보유 타이틀), 다카오신지(본인방)를 비롯하여 고노린(천원), 하네나오기, 요다노리모토 등 최정에 맴버를 파견한다. 여기에 여자기사는 우메자와유카리(여류기성), 스즈키아유미(여류최강위), 아오카기쿠요, 고니시카즈코, 만나미가나 등이 출전시킨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후 10월 3일~17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벌어질 예정인 제1회 세계 마인드스포츠대회는 바둑, 체스, 브리지, 체커, 중국장기 등 5개 종목에 총 35개의 금메달이 걸렸다.

/오피니언 kroh@kwangju.co.kr

"내일은 바둑왕" 세계어린이 국수전



세계의 바둑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제8회 대학생명배 세계 어린이 국수전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63빌딩에서 열렸다. 승재환(안양 귀인초교 6년)군이 결승에서 변상일(서울 마장초교 5년)군과 맞붙어 불가능을 거두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금강산 피격 사건' 바둑계에도 불똥

10월 예정 바둑리그 '금강산 투어' 불투명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의 여파가 바둑계까지 미치고 있다. 지난 11일 금강산 관광 중이던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을 맞고 사망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10월로 예정된 KB국민은행 2008한국 바둑리그 금강산투어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한국바둑리그는 야구나 축구같은 프로스포츠를 모델로 2003년도에 창설된 텁텁 단체전이다.

프로 바둑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연고제를 택하고 유니폼을 착용하는 등 다른 대회와의 차별화에 성공해 첫 해 총 규모 2억 4천만 원의 소규모 대회에서 올해는 35

억원짜리 대형기전으로 발전했다. 텁텁 14경기씩 치르며 12경기는 바둑TV스튜디오에서 벌어지고 그 중 두 경기는 연고지별 흙 앤드 어웨이로 치른다.

올해 신생팀인 티브로드는 연고지를 이복 5도로 선택했다.

800만 실향민들의 통일을 향한 염원을 대변한다는 취지였다. 한국리그의 주최사인 바둑TV는 티브로드와 제일화재의 경기가 10월 1일에 북한 금강산 외길호텔에서 티브로드 흉경기로 개최하기로 하고 현대아산 측과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호텔에 약은 물론 방송에 필요한 중계차도 반입절차를 마쳤고 한국

/연합뉴스

삼성화재배 통합예선 28일 막 올라

제13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통합예선전이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주최국인 한국에서 196명이 출전하고, 중국 51명, 일본 47명, 대만 19명, 아마추어 6명 등 모두 319명(남자 268명, 여자 51명)이 참가한다. 삼성화재배 통합예선 사상 최다 참가인원이다.

통합예선에서 중국 선수단이 일본보다 많이 출전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본선 티켓 16장 중 14장의 티켓이 주어진 남자부의 경쟁률은 19.1 대 1, 2장의 티켓이 걸려 있는 여자부의 경쟁률은 25.5 대 1이다.

16장의 시드는 전기 4강(이세돌·박영훈·구리 9단, 황이중 6단), 삼성화재배 킹스리드 4명(이창호·조준

현·유창혁·창하오 9단)과 국가지도로 한국 3명(목진석·조한승·박정상 9단), 중국 2명(리자 6단, 저우루이양 5단), 일본 2명(미정), 와일드카드 1명에게 주어진다.

중국은 10회 대회 우승자인 뮤지 9단을 비롯해 랭킹 3~5위인 씨에허 7단 등 7단짜리 6단, 랭킹 7~9단 징레이 8단 후야오위 8단 닝웨이 9단, 랭킹 11~16위 왕시 9단 류상 7단 왕야오 6단 치우쥔 8단 저우루이양 9단 천야오 9단 등 최정에 기사가 전원 출동한다.

/오피니언 kroh@

대인동십일부동산

☎ 02-223-1140, 5210 원 011-602-232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 건물)

수완지구 건물임대

호남최대의 신도시 1일 유통인구 30만명 모아아파트·우미아파트 앞 3면 도로점

1층 330㎡ 분할기능

편의점/이동통신/약국/인경점/호프전문점/찜닭점포 앞 보도블록 300㎡있음

2층 340㎡ 170㎡

소아과/치과/내과/전문클리닉센터

3층 340㎡ 분할기능

영어/수학/논술/과학학원

4층 340㎡

피부관리/요가원

5층 340㎡

커피숍/스포츠센터

6층 200㎡

레스토랑/호프전문점

욕실 90㎡ 사용

2008년 12월 입주예정

명성공인증개사

임 대 문 의

016-611-3424, 011-625-0510

첨단월계공인증개사

☎ 087-4585 원 011-604-8205
(첨단지구 부업A LC빌딩 사거리)

★ 급매 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거지 1000평 다세대주택, 물류창고 특지실버시설

첨단 공업지역 내 공장매매 공장건물 3층 910평, 대지 800평 신축준공 2007년 11월

첨단 중심 상업매매

정부지정시 2008년 개시 일 314평

부영·호반마이트·정동 148, 135평

정부지정시 입구 이동로로 신축·임대 200평

첨단 원룸 건물 금매

대 63·간 145 원룸 17 쓰리룸 1개

보 7000만 원 95평 3층 3면

대 70 대 110원 7000만 원 15개

보 2000만 원 80만 144평 18층

대 70 평 120평 100평 18층 18층

보 100평 100평 100평 100평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 컨설팅(주)

(법원 경매집합장 협)

☎ 062-226-0047 ~ 8

명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투자리스크 전문상담

▶ 아파트/빌라

소재지 명칭/면적/층/감정가/최저가/

도로명 모아 24/4층 6층 1층 107/144 3층 2층 2층

신기동 57/93 2층 2층 1층 1층

화성동 92/156 3층 2층 2층 1층

밀곡동 103/149 3층 2층 1층 1층

계림동 86/119 3층 2층 1층 1층

양신동 160/220 74㎡ 4층 1층

평동동 65/164 3층 2층 2층 1층

한기동 83/325 3층 2층 1층 1층

한기동 74/214 2층 1층 1층 1층

신정동 58/41 1층 1층 1층 1층

금산동 74/286 7층 7층 7층 7층

증평동 24/107 1층 4층 4층 4층

회정동 51/158 2층 2층 2층 2층

송정동 299/237 1층 2층 2층 2층

상봉동 86/256 2층 2층 2층 2층

금호동 58/152 1층 1층 1층 1층

성남동 104/200 2층 2층 2층 2층

오산동 82/254 8층 8층 8층 8층

신안동 82/254 8층 8층 8층 8층

포천동 37/152 9층 9층 9층 9층

원신동 24/275 2층 2층 2층 2층

원봉동 56/100 2층 2층 2층 2층

계림동 66/120 3층 3층 3층 3층

동광동 104 1층 1층 1층 1층

증평동 60/40 2층 2층 2층 2층